

‘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집중 분석

■ 공직선거 필요성 평가

- _ 선거필요성, 대통령 선거 가장 높고 기초의원 가장 낮아
- _ 남녀 2030세대, 전반적으로 선거 필요성 긍정적
- _ 4060세대, 대통령 선거 외 다른 선거 필요성 부정적

■ 공직선거 당선자 지향성 평가

- _ 대통령 선거 당선자에 대한 국민평가, 가장 긍정적
- _ 2030세대, 대체로 여자는 긍정적이고 남자는 부정적
- _ 40대 가장 비판적이고, 50대 상대적으로 긍정적

■ 대통령 선거 ‘효용성’과 ‘기대감’ 분석

- _ 국민들,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 낮아
- _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 5060세대 효용성 특히 높아
- _ 대통령 선거와 내 삶 : 효용성, 2040세대 높은 편
- _ 대선 후보 개인 : 5060세대, 효용성·기대감 모두 높아
- _ 후보 정책·공약 : 남자 2030세대 효용성 특히 높아
- _ 선거 결과 : 국민전체 기대감, ‘보통’에도 못미쳐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11월 5일(금) ~ 11월 7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8\%$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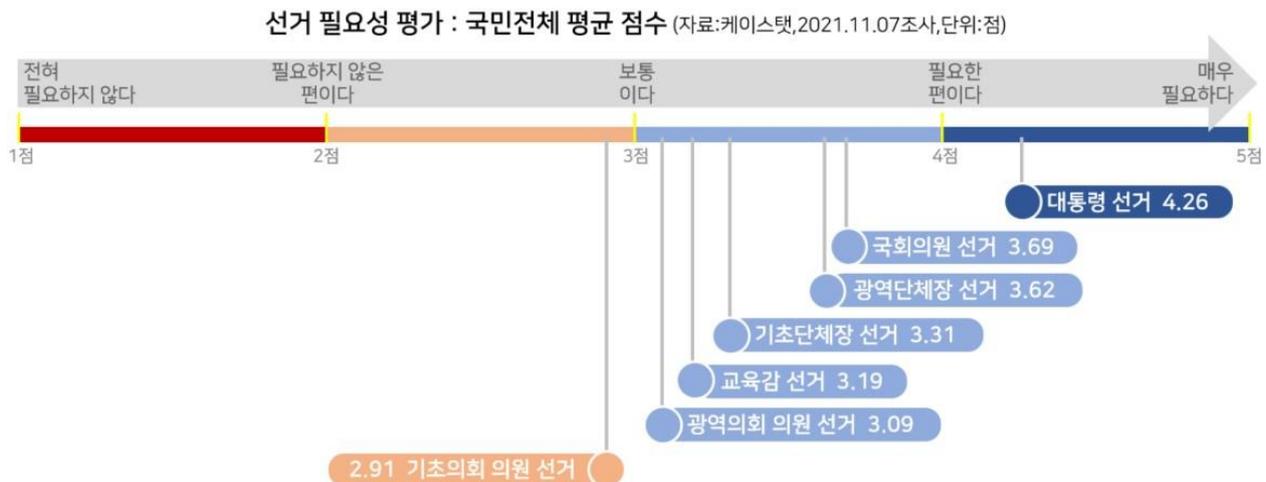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공직선거 필요성 평가

선거 필요성, 대통령 선거 가장 높고 기초의원 선거 가장 낮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 각각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4.26점)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평소 선생님은 다음 각각의 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은 결과임
- 다음으로 '국회의원 선거'(3.69점), '광역단체장 선거'(3.62점), '기초단체장 선거'(3.31점) 순으로 조사됨
- 필요성이 가장 낮은 선거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2.91점)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광역의회 의원 선거'(3.09점) 순임
 - '교육감 선거'는 3.19점으로 광역의회 의원 선거보다 조금 더 필요성을 인정받음



Kstat Point

-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릴 만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전 세계 167개 국가 중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음
 - : 이 수치는 2021년 2월에 발표한 '2020년 민주주의 지수'로, 1위를 기록한 국가는 노르웨이임
 - : 한편 최하위인 167위를 기록한 국가는 북한이고, 다음은 콩고임
- ☑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달성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직선거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지만(4.26점), 그 외 선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낮음
 - : 특히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필요하지 않은 편'에 속할 만큼 냉정한 평가를 받음
- ☑ 이는 우리나라 공직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선거제도 운용 등의 문제 때문으로 분석됨
 - : 위의 EIU 지수는 부문별 점수가 따로 집계되는데, 우리나라는 선거제도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참여도'와 '정치문화'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음
 - : 즉, 각종 공직선거 과정에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제약되어 있고(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이기도 함), 이에 따라 '정치문화' 역시 국민들이 배제된 채 '정치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비판적 평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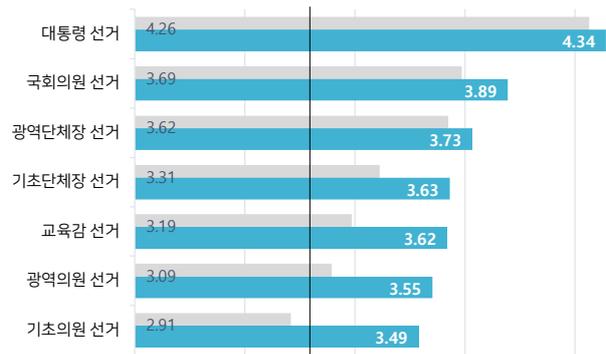
□ 남녀 2030세대, 전반적으로 선거 필요성 긍정적

- 공직선거 필요성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선거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여자 18~20대는 모든 선거에 대해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매기면서 가장 긍정적 태도를 보임
 -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숫자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국민 전체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 다음으로 여자 30대와 남자 18~20대는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선거에 대해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필요성을 표시함
- 이에 비해 남자 30대는 선거 필요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 모습을 보임
 - 특히 국민적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기록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 남자 30대는 4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매김

선거 필요성 평가 : 남18~20대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선거 필요성 평가 : 여18~20대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선거 필요성 평가 : 남30대 (자료: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선거 필요성 평가 : 여30대 (자료: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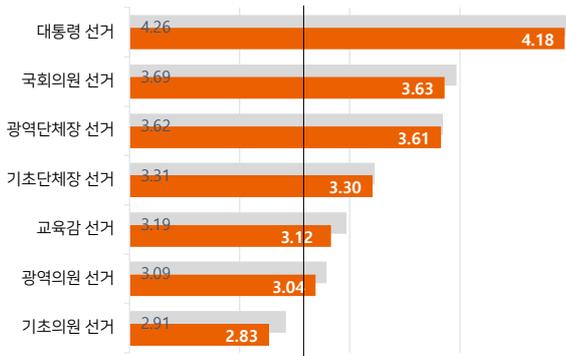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는 전반적으로 현행 공직선거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 이러한 배경에는 2030세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의 공직선거 제도가 완성·정착됨에 따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임
 - : 국민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선거는 모두 지방자치 관련 선거들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선거제도는 1995년부터 완결적으로 시행됨
- ☑ 한편으로 사회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 특성에 따라 '선거'라는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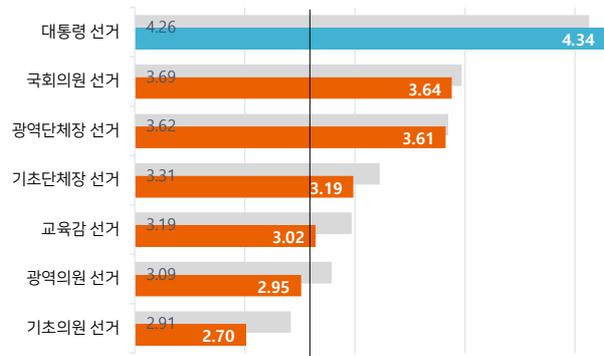
□ 4060세대, 대통령 선거 외 다른 선거 필요성 부정적

- 2030세대와 달리 4060세대는 전반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봄
- 특히 4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이들은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해 모든 선거에 대해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은 점수를 매김
 -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숫자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국민 전체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 5060세대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보다 높은 필요성을 응답했으나, 다른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 60대이상의 경우 예외적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국민전체 평점보다 근소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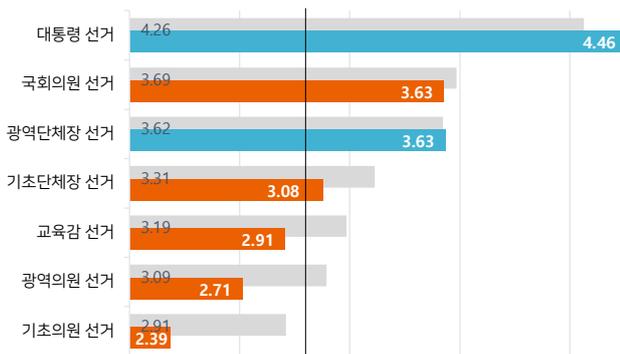
선거 필요성 평가 : 40대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점)



선거 필요성 평가 : 50대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점)



선거 필요성 평가 : 60대이상 (자료: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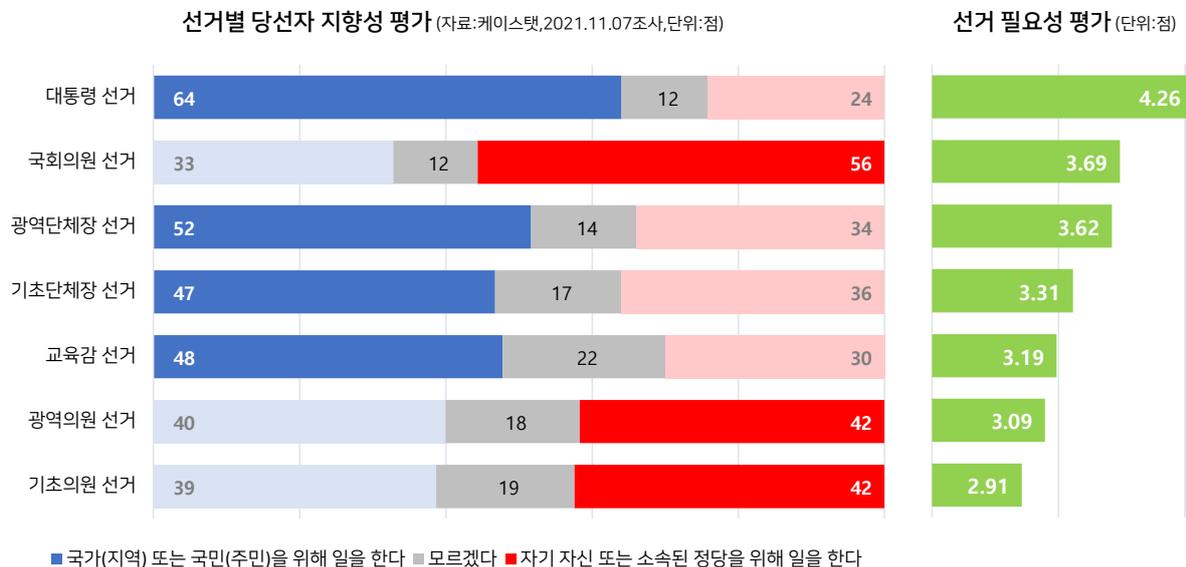
Kstat Point

- ☑ 4060세대는 대통령 선거 직선제 도입, 지방자치 선거 도입, 교육감 선거 도입 등 지금의 모든 공직선거 제도의 도입 과정을 지켜본 세대임
- ☑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선거가 굳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선거'라는 인식을 갖는 경향을 보임
 - :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해 60대이상 연령층에 이르면 교육감 선거, 광역의원 선거, 기초의원 선거 모두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에 속하는 점수를 받음
 - : 또한 4060세대 모두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선거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지방 의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표함

공직선거 당선자 지향성 평가

□ 대통령 선거 당선자에 대한 국민평가, 가장 긍정적

- 공직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의 지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당선자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
- 대통령 선거 당선자에 대해 국민 중 64%가 '국가 또는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응답했고, '자기 자신 또는 소속된 정당을 위해 일을 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침
 - "선생님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각각의 선거를 통해 뽑힌 당선자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국가(지역) 또는 국민(주민)을 위해 일을 한다', '자기 자신 또는 소속된 정당을 위해 일을 한다', '모르겠다' 중 응답토록 한 결과임
- 대통령 선거 당선자 다음으로 긍정평가율('국가(지역) 또는 국민(주민)을 위해 일을 한다' 응답률)이 높은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선거(52%), 교육감 선거(48%), 기초단체장 선거(47%) 순으로 조사됨
- 이에 비해 부정평가율('자기 자신 또는 소속된 정당을 위해 일을 한다' 응답률)이 가장 높은 당선자는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56%)이고, 다음은 광역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 당선자가 같은 수치(42%)로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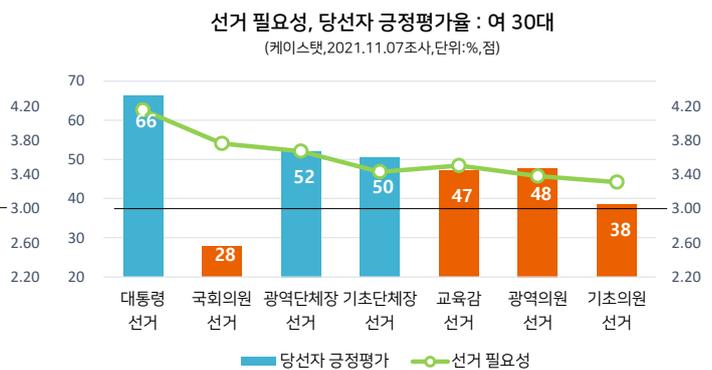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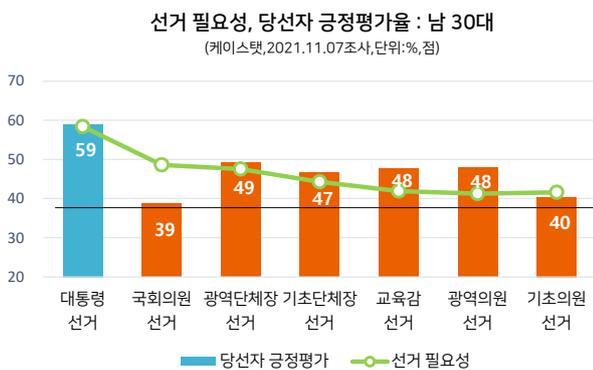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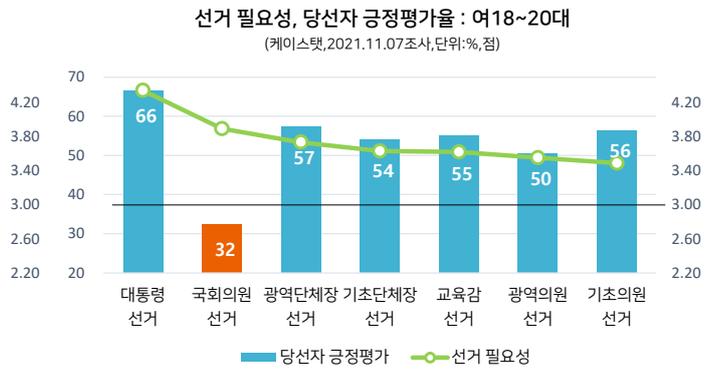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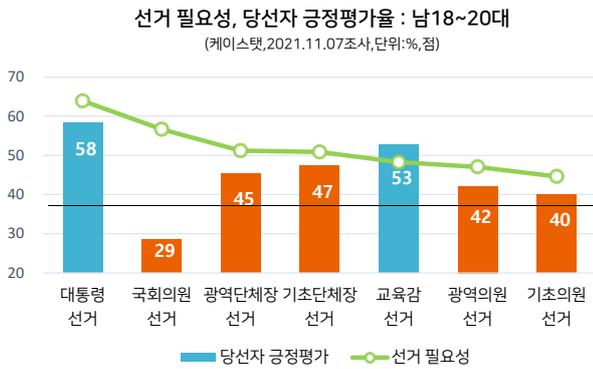


Kstat Point

- ☑ 선거 필요성과 당선자 지향성을 종합하면,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가장 중요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대통령 선거 필요성은 4.26점으로 가장 높고, 당선자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국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함'
- ☑ 주목되는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로, 국회의원 선거는 두 번째로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정작 당선자에 대한 평가는 가장 부정적임
: 국회의원 당선자는 '자신 또는 소속 정당 위해 일한다'는 부정응답이 가장 높는데, 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만이 주로 국회의원을 향해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임

□ 2030세대, 대체로 여자는 긍정적이고 남자는 부정적

-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한 평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자는 긍정적이지만 남자는 부정적임
- 여자 18~20대는 거의 모든 선거 당선자에 대해 긍정평가율 50% 이상을 기록함
 - 그림에서 막대 그래프는 당선자 긍정평가율로, 50% 이상이면 푸른색이고 미만이면 주황색으로 표시함
 - 초록색 선 그래프는 해당 선거 필요성 수치이고, 가로 검은 선은 필요성 '보통'(3점) 기준선임
- 여자 30대 역시 당선자 긍정평가율이 50% 이상인 선거가 3개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표함
- 이에 비해 남자 2030세대는 전반적으로 당선자 긍정평가율이 50% 미만을 기록함
- 한편,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남녀 2030세대 모두 매우 낮은 긍정평가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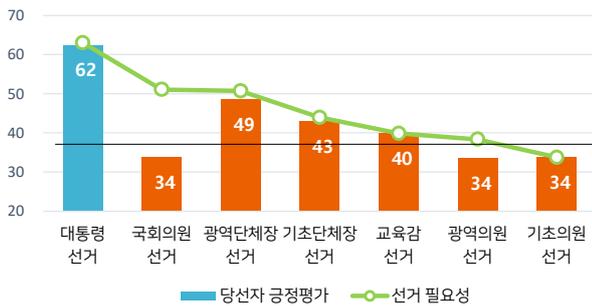
Kstat Point

- ☑ 남녀 2030세대 모두 대통령 선거 당선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긍정평가율이 높게 나타남
- ☑ 하지만 다른 선거 당선자에 대해서는 여성층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남성층은 부정적으로 평가함
: 지금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강도 면에서 남자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에 대한 평가는 남녀 2030세대 모두 매우 부정적임
: 특히 여자 18~20대의 경우, 다른 선거 당선자에 대해서는 긍정평가율 50% 이상을 표하면서도 국회의원 당선자 만큼은 32%라는 낮은 수치를 나타냄
- ☑ 한편, 남녀 2030세대는 모든 공직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선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이는 공직선거 공천권을 갖고 있는 각 정당이 눈여겨볼 부분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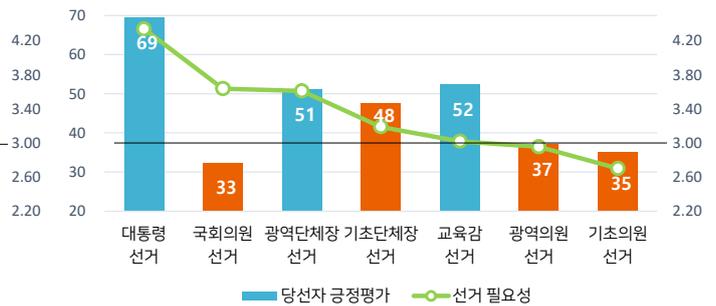
□ 40대 가장 비판적이고, 50대 상대적으로 긍정적

- 공직선거 당선자 평가에 대한 세대별 응답에서, 40대가 가장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남
 - 40대는 선거 필요성에서도 가장 부정적 응답이 높은 세대였음
 - 그림에서 회색 막대와 숫자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국민 전체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 50대는 선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40대와 비슷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당선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함
 - 50대의 대통령 선거 당선자 긍정평가율은 69%로 가장 높으며,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당선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함
- 60대 이상은 대통령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 당선자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태도를 표함
- 한편, 4060세대 역시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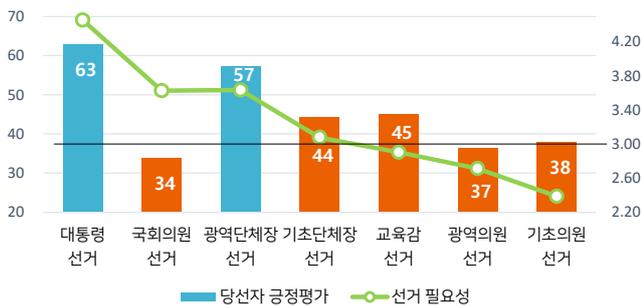
선거 필요성, 당선자 긍정평가율 : 40대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 %, 점)



선거 필요성, 당선자 긍정평가율 : 50대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 %, 점)



선거 필요성, 당선자 긍정평가율 : 60대 이상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 %, 점)



Kstat Point

- ☑ 모든 세대에 걸쳐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당선자는 긍정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함
 - : 세대별 평가에서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모든 선거에 걸쳐 가장 낮음
- ☑ 정치권에 대한 세대별 불만은 예외 없이 국회의원에 맞춰져 있어, 향후 정치개혁이 추진될 시 그 대상은 국회의원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임
 - : 특히 선거 필요성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점을 볼 때, '필요하지만 불만이다'는 국민 모두의 확고한 여론에 주목해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임

▶ 대통령 선거 '효용성'과 '기대감' 분석

□ 국민들,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 낮아

-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효용성'과 '기대감'으로 구분, 조사함
- '효용성'과 '기대감' 각각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1:1로 대응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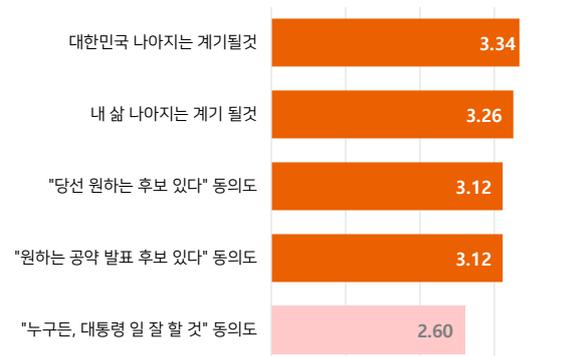
	효용성 (각 질문에 맞는 정도, 5점 척도화)	기대감 (각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5점 척도화)
선거와 국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계기 될 것
선거와 내 삶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나를 비롯 국민 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 될 것
후보 개인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개인적 장점·단점 이해 정도	대통령 후보 중 당선되기를 바라는 후보 있다
정책·공약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정책·공약 이해 정도	개인적 지지 여부 떠나, 원하는 공약 발표 후보 있다
선거 결과*	내가 바라는 결과와 다를 시 받을 충격 정도(몰입도)	어느 후보 당선되든, 대통령 일 잘 할 것(기대감)

- 다만, 마지막 요인인 '선거 결과'의 경우 다른 요인과 달리 '몰입도'와 '기대감'으로 따로 측정함
- 먼저, '효용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요인은 '선거와 국가'(선거결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로 4.3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함
- 다른 요인들, 즉 '선거와 내 삶' 등 다른 모든 요인의 효용성 점수는 이보다 낮음
- 모든 요인에 걸쳐 '효용성'에 비해 '기대감'은 낮은 점수를 보임
- '선거와 국가'에서 '선거결과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효용성)은 4.31점으로 높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3.34점으로 대폭 낮아짐 (다른 요인들도 모두 '기대감'이 모두 낮음)
- 한편, 선거 결과 측면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 할 것이다'에 대한 동의도는 2.60점에 불과함

대통령선거 효용성 : 국민전체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대통령선거 기대감 : 국민전체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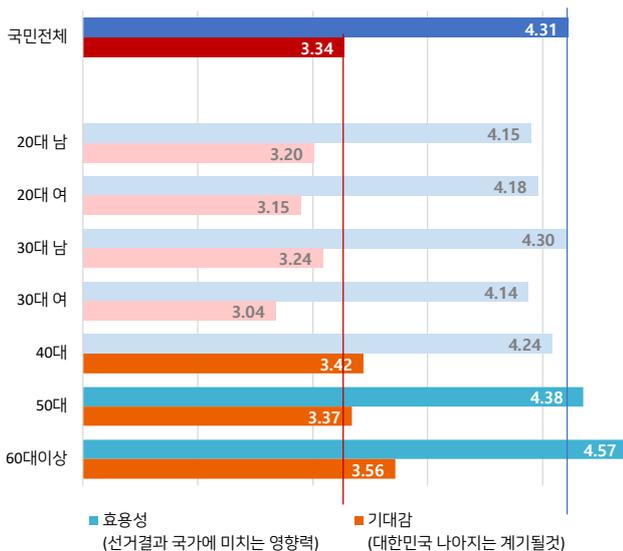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효용성 측면에서도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함
- ☑ 또한 효용성 요인에 대응하는 기대감이 모두 낮은 점수를 기록,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 선거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지거나,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효용성 점수에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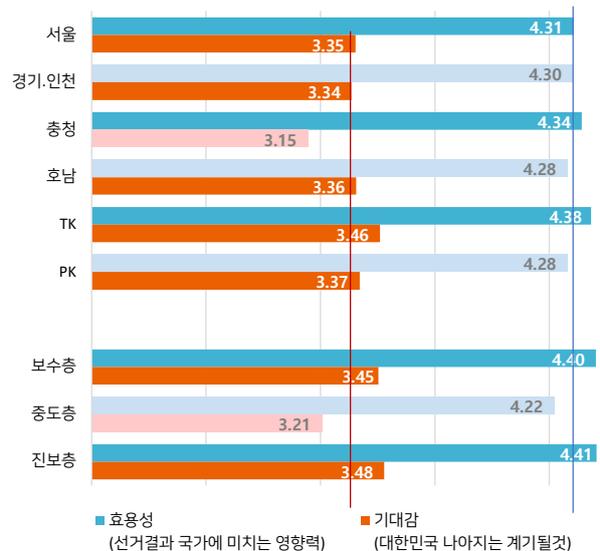
□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 5060세대 효용성 특히 높아

- 대통령 선거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 즉 '효용성'에 대한 국민점수는 4.31점으로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3.34점으로 크게 낮아짐
 -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세로 선은 '효용성' 국민전체 평균점수이고, 붉은색 세로 선은 '기대감' 국민전체 평균점수임
 - 각각 국민전체 평균점수 이상이면 짙은 막대로, 미만이면 옅은색 막대로 표시함
- 먼저 효용성이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계층은 △5060세대 △서울, 충청, TK △보수층, 진보층 등임
 - 이에 비해 국민 전체보다 낮은 계층은 △2040세대 △경기.인천, 호남, PK △중도층 등임
- '기대감'은 모든 계층에 걸쳐 '효용성'보다 낮은 가운데, 국민전체 평점(3.34점)보다 높은 계층은 △4060세대 △서울, 경기.인천, 호남, TK, PK △보수층, 진보층 등임
 - 국민 전체보다 낮은 계층은 △2030세대 △충청 △중도층 등임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효용성, 기대감 : 국민전체, 성/연령별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효용성, 기대감 : 지역별, 이념별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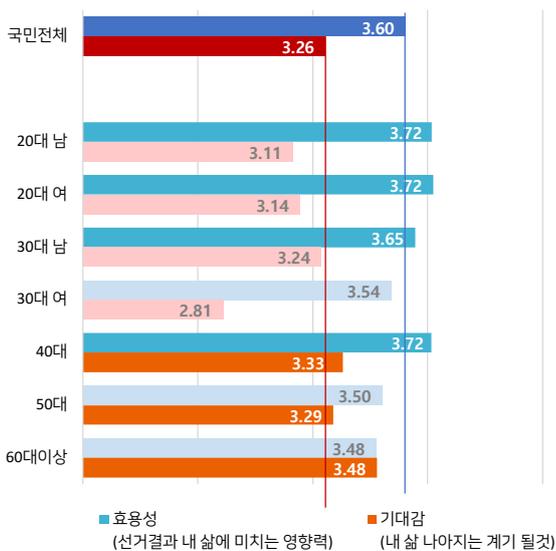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게 생각하지만(4.31점), 막상 대한민국이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지 않음(3.34점)
 - : 2030세대는 대통령 선거의 국가 영향력 높다고 생각하지만(모두 4점 이상), 기대감은 특히 낮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비판적임
 - : 5060세대 역시 국가 영향력을 높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낮음
 - : 이러한 흐름은 40대와 지역별로도 동일함
 - : 보수층과 진보층 역시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높지 않음
- ☑ 종합하면, 5060세대와 보수·진보층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는 '국가적 중요성'이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른 바 '진영대결'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 : 즉, 지금의 민주당 정권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교체를 할 것인지, 이 지점에만 주목하는 선거가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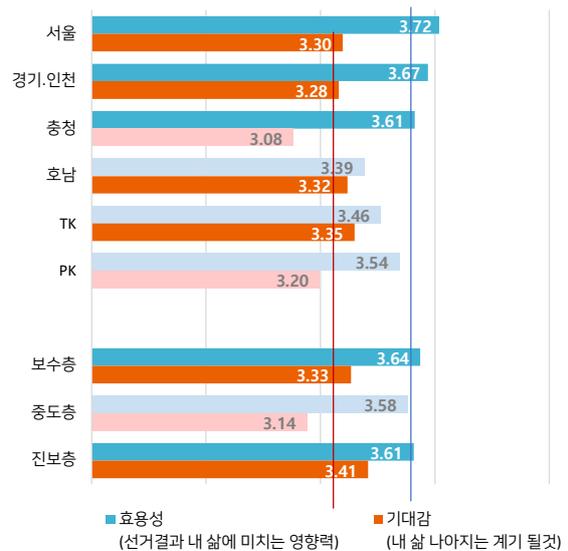
□ 대통령 선거와 내 삶 : 효용성, 2040세대 높은 편

- 대통령 선거가 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효용성)에 대한 국민점수는 3.60점임
 - 이는 앞서의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 점수 4.31점에 크게 못 미침
 -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세로 선은 '효용성' 국민전체 평균점수이고, 붉은색 세로 선은 '기대감' 국민전체 평균점수임
 - 각각 국민전체 평균점수 이상이면 짙은 막대로, 미만이면 옅은색 막대로 표시함
- 효용성이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계층은 △20대 남녀, 30대 남자, 40대 △서울, 경기.인천, 충청 △보수층, 진보층 등임
 - 국민 전체보다 낮은 계층은 △30대 여자, 5060세대 △호남, TK, PK △중도층 등임
- '기대감'은 모든 계층에 걸쳐 '효용성'보다 낮은 가운데,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은 계층은 △4060세대, 서울, 경기.인천, 호남, TK △보수층, 진보층 등임
 - 국민 전체보다 낮은 계층은 △2030세대 △충청, PK △중도층 등임

'선거와 내 삶' 효용성,기대감 : 국민전체, 성/연령별
(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점)



'선거와 내 삶' 효용성,기대감 : 지역별,이념별
(케이스탯,2021.11.07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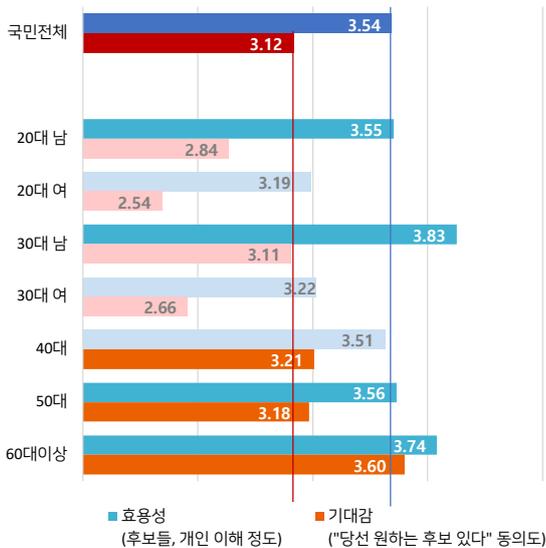
Kstat Point

- ☑ 효용성 측면에서 5060세대는 대통령 선거의 국가적 영향력에만 주목하고, 2040세대는 국가적 영향력과 더불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주목하는 차이가 있음
- ☑ 하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 내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만 놓고 보면 2030세대는 낮고, 4060세대는 높음
 - : 이는 앞서 대통령 선거의 국가적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2030세대의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말해 줌
- ☑ 대선에 임하는 후보·정당들은 이러한 세대적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세대의 복합적인 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잡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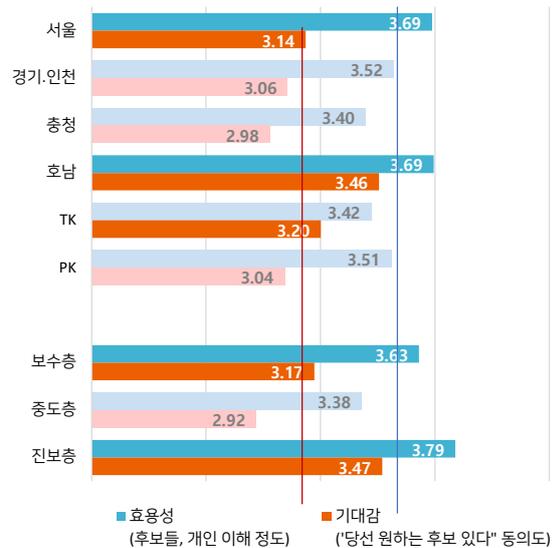
□ 대선 후보 개인 : 5060세대, 효용성·기대감 모두 높아

- 대통령 후보 개인의 장단점 등 이해 정도(효용성)는 3.54점이지만, '당선 원하는 후보 있다' 동의도(기대감)는 이보다 낮은 3.12점임
 -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세로 선은 '효용성' 국민전체 평균점수이고, 붉은색 세로 선은 '기대감' 국민전체 평균점수임
 - 각각 국민전체 평균점수 이상이면 짙은 막대로, 미만이면 옅은색 막대로 표시함
- 세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060세대는 효용성과 기대감 모두 국민 전체 평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이에 비해 2030세대는 효용성은 높지만 기대감은 낮은 특징을 보임
 - 특히 2030여자의 경우 효용성도 국민 전체보다 낮아 대선 후보 개인 자체에 대한 대한 관심이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과 호남은 국민전체에 비해 효용성과 기대감이 높지만, TK와 PK는 낮음
 - 특히 효용성 측면에서 TK와 PK는 국민 전체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냄

'대선 후보 개인' 효용성, 기대감 : 국민전체, 성/연령별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 점)



'대선 후보 개인' 효용성, 기대감 : 지역별, 이념별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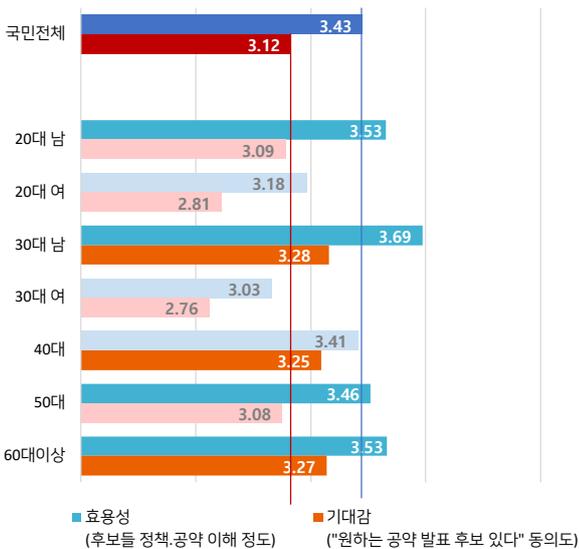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통령 후보 개인에 대한 이해(효용성)와 당선 원하는 후보 존재 여부(기대감) 모두 5060세대에 한정되어 있음
 - : 남자 2030세대는 효용성은 높지만 기대감은 낮고, 여자 2030세대는 효용성·기대감 모두 낮음
 - : 즉,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5060세대에는 충분히 어필하고 있지만 2030세대에게는 그렇지 못한 양상임
- ☑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TK와 PK의 낮은 효용성(대통령 후보 개인에 대한 이해도)임
 - : 이들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자 정권교체 여론이 강한 지역으로, 후보에 대한 관심은 뒤로하고 정권 교체 자체에 주목하는 것으로 분석됨
 - : 향후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단점이 드러나도 상관치 않고 지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 보수층 전체로 확대해도 진보층에 비해 효용성과 기대감이 모두 낮아 동일한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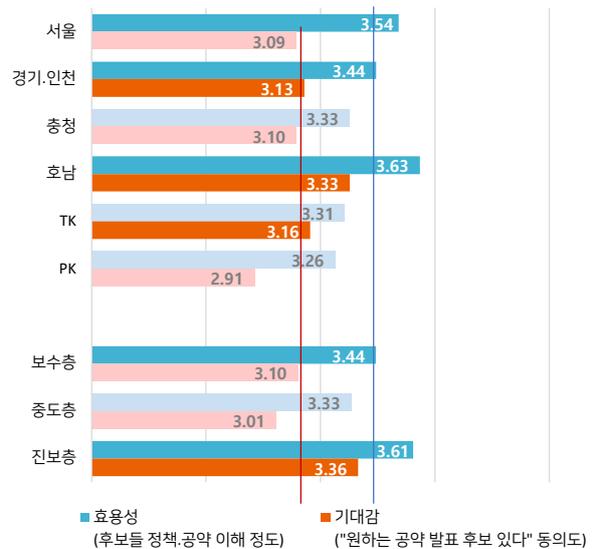
□ 후보 정책·공약 : 남자 2030세대 효용성 특히 높아

- 국민 전체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해 정도(효용성)는 3.43점이지만, '원하는 공약을 발표한 후보 있다' 동의도(기대감)는 이보다 낮은 3.12점에 그침
 -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세로 선은 '효용성' 국민전체 평균점수이고, 붉은색 세로 선은 '기대감' 국민전체 평균점수임
 - 각각 국민전체 평균점수 이상이면 짙은 막대로, 미만이면 옅은색 막대로 표시함
- 효용성 측면에서 국민 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5060세대 △서울, 경기, 인천, 호남 △보수층, 진보층 등임
 - 이에 비해 국민 전체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계층은 △여자 2030세대, 40대 △충청, TK, PK △중도층 등임
- 기대감 측면에서 국민 전체보다 높은 계층은 △30대 남자, 40대, 60대이상 △경기.인천, 호남, TK △진보층 등임
 - 국민 전체보다 낮은 계층은 △20대 남녀, 30대 여자, 50대 △서울, 충청, PK △보수층, 중도층 등임

'정책·공약' 효용성, 기대감 : 국민전체, 성/연령별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정책·공약' 효용성, 기대감 : 지역별, 이념별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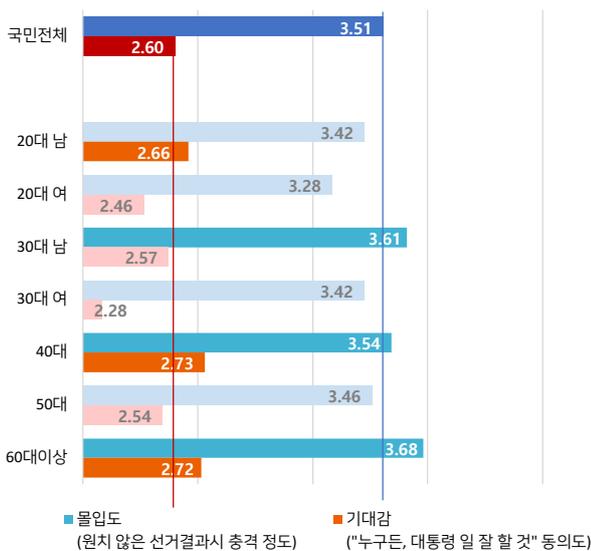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적 기대감은 낮은 상황임
 - : 정책·공약에 기대감을 갖는 세대는 30대 남자, 40대, 60대 이상에 그치고 다른 세대는 기대감이 낮음
 - : 특히 여자 2030세대의 기대감이 매우 낮는데,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여자 2030세대의 실망감을 반증하고 있음
- ☑ 앞서 살펴본 후보 개인에 대한 효용성·기대감과 마찬가지로 TK, PK지역과 보수층의 정책·공약에 대한 효용성·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임
 - : 후보 개인에 대한 매력, 또는 정책·공약에 대한 선호보다 정권교체 자체에 목표를 두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됨
 - : 통상 대통령 선거는 미래 비전과 정책·공약을 중시하는 '전망적 투표'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지만, 이번 대선에 나타난 TK, PK지역 민심과 보수층 의식은 '회고적 투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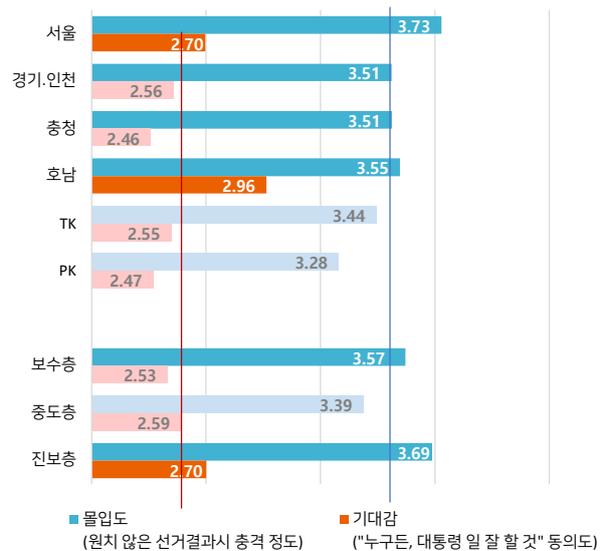
□ 선거 결과 : 국민전체 기대감, '보통'에도 못미쳐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받을 충격 정도'(몰입도)는 3.51점이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 할 것이다' 주장 동의도(기대감)는 2.60점임
 - 국민전체 기대감 2.60점은 '보통이다'(3점)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점수임
 -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세로 선은 '몰입도' 국민전체 평균점수이고, 붉은색 세로 선은 '기대감' 국민전체 평균점수임
 - 각각 국민전체 평균점수 이상이면 짙은 막대로, 미만이면 옅은색 막대로 표시함
- 몰입도 면에서 국민 전체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계층은 △30대 남자, 40대, 60대이상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보수층, 진보층 등임
 - 국민 전체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계층은 △20대 남녀, 30대 여자, 50대 △TK, PK △중도층 등임
- 기대감 면에서 국민 전체보다 높은 계층은 △20대 남자, 40대, 60대이상 △서울, 호남, 진보층 등임
 - 국민 전체보다 낮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30대 남자, 50대 △경기.인천, 충청, TK, PK △보수층, 중도층 등임

'선거 결과' 몰입도, 기대감 : 국민전체, 성/연령별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선거 몰입도' 몰입도, 기대감 : 지역별,이념별
(케이스탯, 2021.11.07조사, 단위:점)



Kstat Point

- ☑ 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이른 바 '진영 대결' 양상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 이번 조사결과 '진영 대결'의 중심세대는 5060세대이고, 2030세대는 다소 관망하는 모습임
- ☑ 하지만 치열한 진영 대결 끝에 대통령직에 오른 후보, 즉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음
 - : 국민 전체적으로는 물론이고, 모든 계층에서 '보통이다'(3점)를 넘지 못할 정도로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낮음
- ☑ 한편으로 이러한 낮은 기대감에는 '내 진영 대통령이 아니라면 일을 잘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임
 - : TK, PK 지역과 보수층의 낮은 점수는 이러한 생각의 결과로 분석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41호, 42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41호와 42호는

각각 12월 9일(목요일), 12월 23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